

# 새정부 가계부채 '150% 총량관리제' 도입

### 재정 확장하며 금리·대출규제 활용 부채 규모 관리

### 지난달 은행권 4조6천억원 증가...증가속도는 둔화

새 정부가 가계부채 정책 기조를 대출 규제를 통한 총량억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닥 잡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들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7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동안 4조6000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이 올해 들어 최대치다.

앞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에 585억 원에 불과했지만 2월과 3월에는 각각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증가액은 2010~2014년 4월 평균 2조 2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가계부채가 이래적외로 폭증한 2015년 4월(8조5000억원)이나 2016년 4월(5조

2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부채는 소비 제약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기조가 대출 규제를 통한 총량억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빚도 늘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금리인하와 과감한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던 박근혜 정부와 차이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경제 공약을 설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언론과 만나 '150% 총량관리제'에 대해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133.1%에서 지난해 9월 말 151.1%로 났 상태다. 이 비율을 15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선 분자인 빚을 줄이거나 분모에 해당하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150% 총량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대출 규제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적절히 조합키로 했다.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를 하기로 한 기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조합은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LTV·DTI·DSR 등의 대출 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으로 나뉜다. 한 가지 정책만으로 150%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90.65 (+4.63)      금리 (국고채 3년) 1.71% (0.00)
- ↑ 코스닥 645.38 (+1.65)      ↓ 환율 (USD) 1123.60원 (-3.80)

## 금호타이어 1분기 적자 전환

### 6분기만에...매출 6693억 전년대비 4.6% 감소

중국 업체로 매각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의 1분기 실적이 6분기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금호타이어는 15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6693억원, 영업손실 28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했다. 영업이익의 규모는 작년보다 433억원이 줄면서 201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률은 -4.21%를 기록, 작년 1분기보다 6.41%포인트나 빠졌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시장은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8.3% 증가했지만 북미·유럽 등 해외 매출이 전년보다 10.9%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출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중국 업체 더블스타는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금호타이어 인수

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들어 본격화된 금호타이어의 중국 매각설이 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 주요 거래선은 글로벌 14위 업체인 금호타이어가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더블스타(글로벌 34위)에 인수되면 브랜드 가치와 품질 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금호타이어는 해외에서 신규 계약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계약 물량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출근 금호타이어 인수의 지를 밝히면서 해외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선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바닥으로 은행업무 보는 시대

### KB국민은행 이달말 창구 첫 서비스...정책 인증 금융권 확대

통장이나 현금카드 없이 은행 창구에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KB국민은행은 손바닥 정책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달 말 50여개 영업점의 창구와 자동화기기(ATM)에서 시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책 인증은 영업점이나 ATM에 설치된 인식기 위에 손바닥을 올리면 혈관 모양을 기기가 인식해 본인 확인을 하는 생체인증 방식이다.

앞서 신한, 우리은행 등이 무인점포

자동화기기(키오스크)에 손바닥 정책인 증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금융투자업계 등 다른 금융권으로도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자동화기기가 아닌 은행 지점창구의 일반업무에 본인 확인 용도로 정책 인증을 도입한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창구거래 외에 지점 내 ATM이나 대어금고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실명확인이 필요한 업무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연합뉴스

## 익산국토청 장마 전 건설현장 점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완중)이 우기철을 앞두고 한 달간 호남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호우, 태풍, 기상이변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익산국토청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등과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도로, 철도, 하천, 건축물 등

33개 공사현장을 확인한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옹벽, 절개지, 지하굴착 공사, 하천제방 공사 등을 점검하고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와 붕괴위험 지역의 계측관리 실태, 침사지, 맨홀, 수방 자재, 장비확보 적정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주년 스타얼라이언스...회원사 총출동 14일(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등 스타얼라이언스 각 회원사 유니폼을 착용한 직원들이 출범 2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지난 1997년 5월 14일에 출범한 스타얼라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항공사 동맹체로서 지난 20년간 '사람과 문화를 잇는다(Connecting People and Cultures)'는 비전을 실천해 왔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현재 28개 회원사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191개국 1300곳의 취항지를 연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 휴게소 청년창업 아이템 공모

###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이달까지...20~35세 입점 특선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 아이템과 발명 아이디어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휴게소 청년창업 아이템은 청년창업매장부, 발명 아이디어는 일반부와 청년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년창업매장부는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한다.

공모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 창업이 가능한 일반창업(기존 메뉴와 차별화되는 간식류와 식사류) 분야와 지식창업(공예, 그림, 패션소품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광주·전남지역 청년창업 매장 입점 휴게소는 백양사, 지리산휴게소 등 7곳이다.

휴게소 청년창업매장부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061-883-6045), 발명 아이디어는 광주지식재산센터(062-604-9249)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

## 로그인 한번에 은행·보험·증권 계좌 조회

### '파인'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내년 하반기부터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증권 등 금융권 어딘가에 묻혀 잠자고 있는 내 휴면계금을 찾아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 증권 등 국내 대부분 제도권 금융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fss.or.kr)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 ▲

내보험 다보어 ▲통합연금포털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크레딧포유 등 5개 조회시스템에서 은행, 보험, 연금, 휴면계좌, 대출 관련 계좌정보를 파인에서 접근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업권별로 정보 취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각 시스템에 일일이 따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1단계로 현재 운영 중인 이들 5개 조회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작업을 올해 4분기 중 마칠 것으로 했다. /연합뉴스

**해남 [新] 프리미엄**

##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사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독점하다!

-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사남부권완도, 진도, 고흥,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청을 품은 위치, 해남고, 해남중학교, 해남고, 해남대입문,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 복합 테마상가** - 무도, 의료, 의료, 미술, 학원, 법조타운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성공,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불가 상품, 두번이상 임대 수익률 프리미엄 가치

**분양·임대 1577-1901**

새마을금고 | 1주금상  
사모 | 진보종합건설(주)

\* 본 이야기는 4차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본 이야기는 4차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 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F**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축산전문, 대형전시장

**2~5F**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형

**6F** 743㎡ 전문병원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회장 환형

**친절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